역공 나선 민주당…“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요청하라”

부동산 문제 털어내고 야당 압박
“감사원 조사는 빠져나가기 꼼수”
탈당 권유 일부 의원 반발 여진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 “마음이 아픈 일이 많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며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에 여러 가지 부실한 점도 있었다”면서 “탈당 권유는 12명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린 징계 결정이 아니다.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진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전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지만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세종시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서 관세평가원 직원들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청하시기도 했다”며 “국민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다.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하라”며 “권익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차라리 윤석열 검찰 라인에 수사를 의뢰하라. 국민의힘 구세주인 윤석열 빽에 기대라”고 비꼬았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내부정보 활용 부패수익은 징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반발도 상당했다. 12명에 포함된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국회 당대표실을 항의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권유 철회를 정식 요청했다”며 “불법이 있었다면 제가 극단적 결정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는 페이스북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인격살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영웅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을 부여잡고, 바위처럼 끈질기게 지도부와 언론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썼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가 애초 농지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수사결과를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기는 했다”면서도 “의지를 보이자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대표가 결정권을 위임받아 고심 끝에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이것은 징계가 아니다. 당의 정무적 조치이고,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프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원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 당 대표와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쓰나미 휩쓸릴라…민주당 대권주자 파장 촉각

탈당 권유 의원 12명 중
캠프 관여 의원들 적지 않아
의혹 해소 기대 속속 “포럼 탈퇴”
대선단장 거론 우상호 거취 주목

더불어민주당에 불어닥친 ‘부동산 쓰나미’의 여파에 당내 주요 대권주자 진영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탈당을 권유받은 12명 의원 중에는 대선주자들의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각 대선주자 진영에서는 조만간 특수본의 조사가 이뤄지면 억울함이 풀리면서 복당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불러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수본 조사 결과,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불탈법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뜻하지 않은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출혈이 큰 후보 진영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다. 임종성·김한정·문진석·서영석·양이원영 의원 등 5명이 탈당 권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지사 지지 성향의 원내 모임 ‘성공포럼’ 소속이다. 이 가운데 이 지사와 비교적 오랜 인연을 가진 임 의원 외에는 대부분 최근에 합류한 멤버들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지사의 국내외 지지 조직인 ‘공명포럼’을 주도하던 임 의원은 이날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모든 이 지사 관련 포럼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관련 직책을 맡을 경우 이 지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 가운데서는 오영훈·김주영, 윤재갑 의원 등이 탈당 권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당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은 캠프 내에서 인재 영입 등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오 의원은 간단한 소명만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의혹임에도 지도부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의원들의 부동산 불·탈법 거래 혐의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오해가 풀리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돕는 의원 중에서는 김수흥 의원과 김회재 의원 등 2명이 탈당 권유 대상이 됐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 지역에서 정세균 전 총리 지지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다.

김회재 의원 역시 이날 직접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탈당 권유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 전 총리 측에서는 김 의원의 소명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당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의 거취도 주목된다. 우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머니의 묘소를 쓰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4선의 우 의원이 그동안 대선 기획단장 등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11~13일 영국 G7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는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이다.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함께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미국이 의장국이었던 작년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12~13일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한다.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이, 2세션에서는 열린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이, 3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각각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용진, 민주당 대선 지지율 깜짝 3위

한길리서치 조사…이재명 28.9%·이낙연 11.5%

9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민주당의 대선 구도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추미애 전 장관도 4%대의 지지율을 얻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나타냈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5~7일 지지 정당 구분 없이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는 11.5%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박 의원이 5.3%의 지지도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재선의 박 의원은 1971년생으로, 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한 79세대(70년대생·90년대 학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 대선 구도에서도 박 후보 지지율 상승과 연결되면서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6%를 얻는데 그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